

방역당국 "55~59세 예약혼선 죄송...예약재개 최대한 앞당길 것"

“접종 가능한 물량 충분히 도입 예정...접종 원하는 50대 모두에게 기회 부여”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3일 55~59세 예방접종 예약 조기 마감과 관련해 “예약을 시도하셨던 분들에게 큰 혼란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전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이 단장은 “접종예약의 조기마감이 가능할 수 있다는 상황에 대해 사전에 안내드리지 못했다”며 이같이 사과했다. 그러면서 “이번 55~59세 185만 명의 예약 조기 마감은 도입과 배송 일정을 고려해 안정적인 접종이 가능한 물량 내에서 예약이 진행됐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이어 “7-8월 예방접종은 주로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접종 가능한 물량은 충분히 도입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 “모더나 백신은 매주별로 도입되고 있는 상황으로, 7월 중 도입 상황의 변동성에 있어서 이번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며 “예약 물량에 제한이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지 못한 점은 거듭 사과와 양해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런 상황을 충분히 반영해 당초 19일에 알려드렸던 예약 재개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 중이며, 향후 일정은 준비되는 대로 별도 안내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예약하지 못하신 55~59세 연령층을 포함해 접종을 원하는 50대 연령층의 모든 분들에게 예약 기회를 부여해 차질 없이 접종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별 계약된 화이자 백신 79만 9000회분이 오는 14일 인천 공항에 도착한다”면서 “화이자 백신은 7월에 점진적으로 증가된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며, 이미 도입된 화이자과 모더나 백신을 포함해 약 1000만 회분의 백신이 7월 중에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단장은 60세 이상 발생률 추이 및 예방접종의 중증사망예방 효과를 설명하며 “60대 이상 인구집단에서는 백신접종을 증가에 따라서 확진환자, 위중증 사례 그리고 사망자가 모두 감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60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5월 이후 발생률이 감소하고 있으며, 누적 1회 접종률이 88.3%에 도달한 7월 1주 차에는 인구 10만 명당 3.5명 수준까지 발생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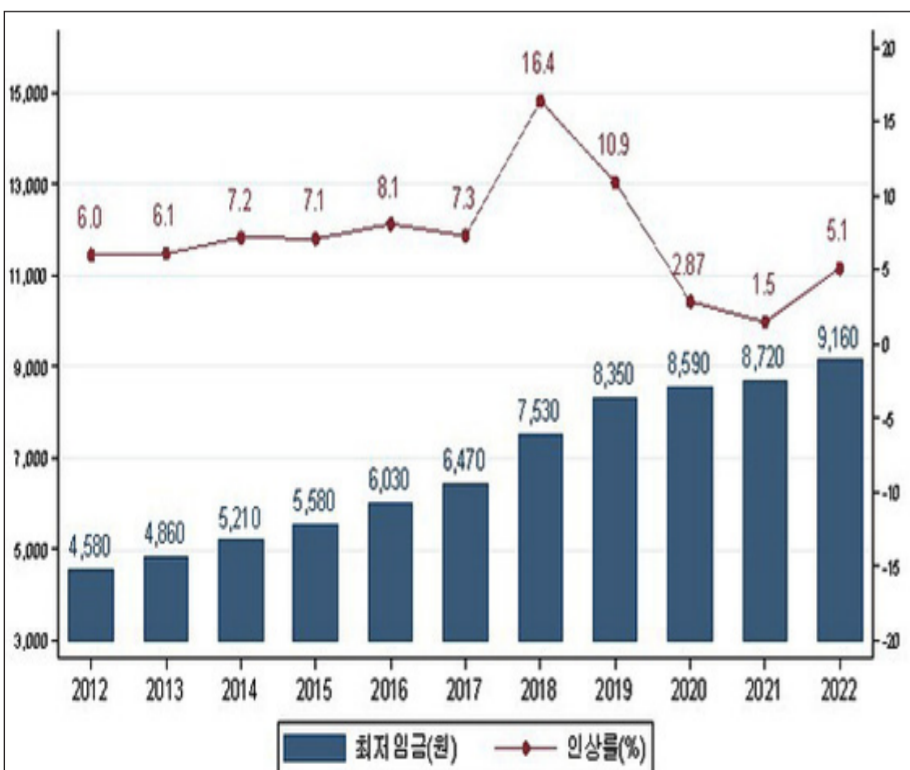
▲ 천안시 예방접종센터(실내테니스장)에서 75세 이상 어르신 및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등의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천안시) © 이와 관련해 방역당국은 지난 5월 60세 이상 확진자 3906명에 대한 분석 결과 94.7%(3702명)는 백신 미접종자이거나 1회 접종을 받았더라도 접종 후 14일이 지나기 전에 확진된 사례였다고 밝혔다. 또한 확진 후 28일간 임상경과를 추적 관찰한 결과 미접종 확진자의 위중증률은 7.2%, 사망률은 1.8%였고 1회 접종완료 후 확진자의 위중증률은 5.5%, 사망률은 0.5%였다. 특히 2회 접종완료 후 확진자 중 위중증 및 사망자는 없었다. 이에 이 단장은 “결과적으로 예방접종 완료 후 감염된 사례에서 중증 및 사망 예방효과는 100%로 나타났으며, 1회의 접종만으로도 22.8%의 중증 예방효과와 71.4%의 사망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결과에 대해 백신 접종은 감염 예방을 통해 유행의 규모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감염에 취약한 고령층의 중증질환과 사망을 예방하는 효과를 확인한 결과로, 일정에 따라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칼럼] 정보는 국력이므로 잘 지켜야 한다

‘정보는 국력이다.’ 앞 전 국가정보원 정문 앞 원훈석에 새겨진 문구다. 말 그대로 정보가 국가의 힘이란 뜻인데 일반 국민들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첨단 과학과 기술이 총동원되어 국가의 기밀을 보호하고 해커들의 공격을 막는 등 국민들의 개인정보까지 보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군사, 경제, 과학은 물론 모든 분야에서 정보는 힘, 그 이상의 재산이다. 해당 분야에서 누가 얼마 만큼의 새로운 정보를 취득하느냐에 따라 앞서갈 수 있는 여지를 안고 있으니 더 말해 뭐하랴. 정부는 국가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정보보호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한 대한민국 법정 기념일로서 매년 7월 둘째 수요일로 정해진 ‘정보보호의 날’이다. 이날은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고 국민들의 정보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해 정해진 날인데 2012년 제정되었으니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한다. 가장 큰 사건으로는 2009년 7월 해커에 의해 감염됐던 좀비PC 11만대가 정부기관 시스템을 공격한 7.7DDoS공격 사건이다. 2009년 7월 9일 국가정보원에서는 발생의 진원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110호 연구소로 추정된다는 발표를 한 반면 보안업체에서는 미국과 대한민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IP에서 발생이 시작된 것이라고 추정하는 등 의견이 분분했다. 어쩌거나 흐지부지된 이후 국내 언론에서는 디도스 공격에 관련한 이들이 20명의 중·고등학생이라고 밝혔고 대부분 전과가 없는 학생이라는 점을 이유로 입건을 유예한 바 있다. 이렇듯 정보전쟁은 보이지 않는 무형의 전시상태로 총성 없는 무혈전쟁이지만 실제 피해를 입는 입장에서 막대한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 국가적 피해에 앞서 일반적인 사례를 보면 해커들의 전문적인 범행 앞에 속수무책인 경우가 속출한다. 개인정보 유출은 기본이고 휴대폰 번호 하나만 계좌번호, 비밀번호는 물론 현관 도어록과 이메일 비밀번호까지 모두 털릴 수도 있으며 심지어 주민번호만으로 진료기록과 부동산 산 소유까지 한번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다. 이쯤되면 개인정보에 대해 철저한 관리와 수시 변경으로 인한 외부의 악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문서나 사진, 업무적 자료 등을 작성, 보관, 활용하는 것은 이제 현대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업무의 일환이다. 불편해서 어렵다면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아야 하는 것이 현대인의 삶이다. 하지만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문명의 이기가 외려 큰 낭패를 겪는 도구가 된다면 이는 문명 그 자체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는 만큼 평소 신중하고 철저한 관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작성한 정보를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

내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올해보다 5.1% 인상

2022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 8720원에 비해 5.1% 오른 9160원으로 가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사·공익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 수준에 대해 논의해 최종 표결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440원 인상(5.1%)된 9160원으로, 주 40시간 기준의 월 단위로 환산하면 올해 대비 9만 1960원 오른 191만 4440원이다. ▲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 추이(2012년~2022년) © 이날 회의는 시작과 동시에 노·사가 각각 1만 320원(1600원, 18.3% 인상)과 8810원(90원, 1.0% 인상)의 제3차 제시안을 제출했고, 이어 1만 원(1280원, 14.7% 인상)과 8850원(130원, 1.49% 인상)의 제4차 제시안을 제출했다. 이후 노·사 양측은 더 이상 간극을 좁히지 못해 공익위원에게 심의촉진 구간을 요청했고, 공익위원 심의촉진 구간이 제시되자 민주노동 추진위원 4명 등 일부 근로자위원이 반발해 퇴장했다. 이어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심의촉진구간 내로 제시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했으나 노·사 양측은 더 이상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고 공익위원 단일안 제시를 요청했다. 이어 정회 후 이어진 회의에서 위원장이 공익위원 단일안으로 올해 대비 440원 오른(5.1% 인상) 시간급 9160원으로 표결을 선포하자 사용자위원 전원이 반발하며 퇴장해 기권으로 처리했다. 이후 재적위원 27명 중 기권자 포함 23명이 출석해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10명으로 공익위원 단일안이 가결됐다. 한편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근거는 ‘경제성장률(4.0%)+소비자물가상승률(1.8%)-취업자증가율(0.7%)’로,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768만~355만명이고 영향률은 4.7~17.4%로 추정된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본격 시동... 유치위 창립총회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한 범국가적 추진 조직이 본격 시동을 걸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 등 3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총회에서 김영주 전 무역협회장이 유치위원장으로 공식 추대됐고 각계 각층의 사회 주요인사 78명이 유치위원으로 위촉됐다. 유치위원회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전략 수립 및 실행, 민간의 해외네트워크 활용 등을 통한 169개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 대상 유치활동, 부산세계박람회 국내외 홍보 등을 추진하기 위해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할 예정이다. ▲ 김부겸 국무총리(오른쪽 다섯번째)가 1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창립총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김영주 유치위원장을 비롯해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준 부산시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과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 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여수엑스포나 평창동계올림픽처럼 대기업 회장이 유치위원장을 맡아 특정 기업 주도로 유치활동을 하는 것이 아닌 현대차 등 5대 그룹을 비롯한 재계가 협력해서 유치를 지원하는 체계로 운영하기로 해 5대 그룹이 유치위원

성남시, 한여름 밤하늘을 밝힐 '2021 드론쇼' 추진



소병훈 “코로나사태 장기화로 임대료·관리비 내지 못한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급증… 추경에 긴급주거지원금 편성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 갑)이 13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

체회의에서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지 못한 공공 임대주택 거주가구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17개 시·도 지방공사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자력으로 미납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기 어려운 주거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긴급 주거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병훈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접수된 주거위기정보 입수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미납 관련 주거위기정보 입수건수는 2019년 16만 4960건에서 2020년 28만 5753건으로 전년 대비 73.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소병훈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17개 시·도 지방공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가구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서울·부산 등 8개 시·도 지방공사 소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9,409가구가 약 63억 3,358만원의 임대료를 미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관리비 역시 17,833가구가 36억 5,441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부산시는 작년 부산도시공사가 소유한 영구임대주택의 관리비 체납률이 4.0%로 3배 넘게 증가하자 작년 11월부터 영구임대주택 1만 725세대의 관리비 지원을 위한 주거 긴급재난지원금을 가구당 10만원씩 지원한 바 있다. 또한, 미국 로스앤젤레스 주에서도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주거취약계층이 급증하자 ‘긴급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Emergency Rental Assistance)’을 통해서 10만 가구 이상의 주거취약계층에게 긴급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은 대부분 소득이 매우 적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한부모 가족, 저소득 청년·대학생 등 취약계층인 경우가 많고, 이들은 코로나 사태가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소득이 감소하는 등 큰 경제적 타격을 받았다”면서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관리비 미납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미납 임대료와 관리비를 자력으로 지불하기 어려운 주거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긴급 주거 지원금을 편성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 납부 유예, 동결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최광수/기자

조오섭의원 '5·18소년수 명예회복법' 대표발의

법원 결정·명령 등 처분도 특별재심 청구대상 포함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13일 '5·18민주화운동 참여 소년수 명예회복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법원의 특별재심 대상에 결정·명령 또는 이에 준하는 법원의 처분을 받은 경우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만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5·18 당시 고등학생 등과 같이 미성년자였던 사람들에게 대한 구금은 대체로 확정판결이 아닌 법원의 결정 등을 통해 이뤄져 특별재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고등학생 등 소년수들을 특별재심 대상에 포함시켜 실질적인 명예회복과 배상을 실현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5·18민주화운동 관련 체포·구금·사망한 고등학생은 총 257명으로 이 중 사망자만도 69명에 달한다. 특히 최근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이 1980년 11월 17일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선고받은 이강희(59)씨의 계엄법 위반 판결의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대상이 아니다”는 의견을 내면서 5·18민주화운동 참여 소년수의 명예회복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조 의원은 “그 동안 5·18민주화운동 관련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지만 소년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며 “이제라도 법개정을 통해 소년수 처분결정도 재심대상에 포함시켜 이들의 아픔을 씻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강은미, 김성주, 김원이, 민형배, 송갑석, 신정훈, 윤영덕, 윤재갑, 이병훈, 이용빈, 이형석, 이재근, 주철현 등 1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최만식/기자

경상북도의회 김하수 위원장, '지방정부, 인권을 품다' 인권특강

김하수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위원장(청도, 국민의힘)은 7월 12일 경북도청 다목적홀에서 4급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정부, 인권을 품다'라는 주제로 인권특강을 진행했다. 김하수 위원장은 인권행정 추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간부공무원의 인권의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도민의 의견에 부응하여 인권특강에서 인권의 개념, 역사, 유형별 사례 등에 대해 꼼꼼하게 강의를 진행했다. 김하수 위원장은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항상 인권에 기반한 의정활동을 실천해왔고 인권행정 이 지역에 깊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이날 김하수 위원장은 “공무원들이 인권행정의 주체로서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도의회 차원에서도 경북도민의 인권 신장과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세기/기자



김정희 전남도의원, “2025 고교학점제” 준비 철저

전남형 고교학점제 전국적인 모범사례 만들자 비전 제시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5)은 지난 7일 제354회 임시회 전남도교육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2025년부터 본격 도입될 고교학점제의 철저한 준비를 강조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해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학점이수 운영 제도이다. 김정희 의원은 “학생이 희망하는 과목이 해당학교에 없으면 인근의 다른 학교와 함께 과목을 공동으로 개설하거나 지역사회와 대학 등을 연계해야 한다.”며 “학생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고교학점제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로 이루어져 100과목 이상의 교사·교수 확보가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전남대와 업무협약(MOU)을 맺었지만 순천대와 목포대도 추가하여 전문인력 확보에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외에도 “안정적인 고교학점제 출발을 위해 소수의 학생이 선택하는 교과 문제와 학점 미이수자 발생 등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고, “시행하기까지 남은 3년 기간 동안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전국적인 모범사례를 만들자”고 덧붙였다. 김영만/기자

http://www.dailyculture.kr 문화매일 facebook.com/dalyculture.kr
우편번호: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 14222 광명시 시청로7 흥신에이스텔 701호
발행·편집인: 최수진 / 회장 문기주/부회장 박부석 / 사장 임성경 / 편집국장: 최재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발행인: 최수진
대표전화: 1899-9659 e-mail: ekwk44@naver.com suji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정 치 부: 내선 (112) 문 화 부: 내선 (116)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 서울 가50146 사 회 부: 내선 (113) 부 동 산 부: 내선 (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경 제 부: 내선 (114) 오 피 니 언 부: 내선 (118)
대표전화: 1899-9659 스포츠부: 내선 (115) 지 방 부: 내선 (119)
편 집 국: 02) 2612-2959
팩 스: 02) 2060-4147 구독신청·배달안내: 1899-9659 구독료: 월 15,000 1부 800원

남원시 남원 농·축산물로 가장 맛있는 요리 만들기
2021 남원시 유튜브 영상 공모전 접수기간: 2021. 8. 1(일) ~ 8. 9(월)
공모내용: 남원 농·축산물을 재료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맛있게 먹는 영상
결과발표: 2021. 8. 31. 시 홈페이지 공지 (예정)
작품심사: 심사위원 10명 선정 후 국민심사 (유튜브 좋아요 득표수 평가) 최종선정: 심사위원 점수 50% + 국민심사 점수 50%
출품작규격: 아래 3가지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함. ① 영상 자막 또는 화면에 남원 농산물 구입처 표기 ② 요리 방법 소개 ③ 맛있게 먹는 먹방 ※ 출품작 규격 이외 영상 촬영 장소, 내용 구성, 화질 구성 등은 자유형식으로 하되 영상 길이는 최대 10분을 넘지 않도록 함
시상내역: 구분, 작품수, 시상금, 비고
대상: 1, 3,000천원
최우수상: 2, 각 1,500천원
우수상: 2, 각 1,000천원
입선: 5, 각 300천원
제출방법: 참가신청서 1부, 요약서 1부, 출품작 1편 제출(hijins@korea.kr)
문의처: 남원시청 홍보전산과 홍보계 (☎063-620-6044) ※ 기타 세부사항 및 신청서류는 남원시청 홈페이지 참고

관악구,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임시선별검사소 추가 운영



관악구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확산 중인 코로나19에 대응하고자 13일부터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역 내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신속한 진단검사 체계 유지를 위해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낙성대공원(낙성대로 77)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했다.

임시선별검사소는 거리두기 단계와 확진자와의 역학적 연관성,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10:00 ~ 17:00, 주말(토·공휴일) 10:00 ~ 15:00로 일요일은 운영하지 않으며, 매일 12:00 ~ 13:00는 미운영·방역시간이다.

구는 검체 채취와 소독 등을 전담하는 의료인력 3명 외 발열체크, 안내를 담당하는 행정인력을 추가로 배치해 2개월간 운영, 추후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구는 보건소 선별진료소(관악로 145), 신림체육센터(난곡로58길 13) 임시선별검사소와 함께 총 3개소를 운영한다.

지난 1일부터는 급증하는 확진자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을 연장, 평일 09:00 ~ 21:00, 주말(토·일)과 공휴일 09:00 ~ 18:00로 운영하고 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미운영·방역 시간: 평일 12:00~13:00, 18:00~19:00/주말 13:00~14:00)

한편, 구는 강력한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2주간 방역 관리에 더욱 집중할 방침이다.

이미 지난 1일부터 방역현장 특별 점검을 진행 중이며, 점검대상은 지역 내 유흥시설,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PC방, 종교시설, 학원 등으로

시설별 점검반을 편성해 현장을 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살피고 있다.

거리두기 4단계 시행기간에는 변경된 개편안 내용에 따라 각종 지도·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고, 방역수칙 위반 사례 적발 시에는 즉시 과태료부과, 고발조치 등 행정조치를 보다 강력하게 할 계획이다.

예방접종에도 속력을 낸다. 구는 조속한 백신접종을 위해 예방접종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13일부터 잦은 대민접종 등 전과위험이 큰 학원종사자, 운수종사자, 환경미화원, 택배기사, 아이돌블 종사자 등 7개 직군 약 9,000명을 대상으로 지자체 자율접종을 진행한다.

오는 26일부터는 지역 내 위탁의료기관과 함께 50대 이상 모더나 접종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학원, 노래방, PC방, 음식점, 카페 종사자에 대한 선제검사 행정명령에 따라 대상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구는 역학조사, 자가격리 모니터링, 백신예방접종, 각종 방역수칙 점검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 부서에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엄중한 상황인 만큼 구민 여러 분께서도 철저한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와 기침, 발열,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선별진료소에 방문해 검사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며, “구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기(RFID) 112대 확대 보급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 RFID 개별계량기 112대를 추가 보급했다.

구로구는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기(RFID) 설치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개별계량기(RFID)는 카드를 사용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 배출량이 자동 측정돼 세대별로 버린 만큼 수수료가 부과되는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가 높고,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해 해충 예방과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구로구는 개별계량기(RFID) 설치 사업을 시작한 2016년부터 현재까지 공동주택 61개소, 33,868세대에 총 461대를 보급했다.

올해는 공동주택 14개소 8,813세대에 총 112대를 지원했으며 주민

동선, 거점간 거리 등을 고려해 70세대당 1대씩 설치했다.

이에 앞서 구로구는 지난 5월 관리주체가 있는 14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개별계량기(RFID) 설치 신청을 받았다. 배출량, 설치장소, 신청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구로구 관계자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음식물쓰레기 발생 자체를 줄이기 위한 주민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개별계량기(RFID) 설치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구로구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다량배출사업장 발생 억제·처리실적 관리,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홍보 안내문 배부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미성기자

서울시, '모노클'紙 선정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1위

글로벌 잡지 모노클 2009년 살기 좋은 도시 지표 발표 시작 이후 첫 진입

서울시가 글로벌 시사 월간지 '모노클(Monocle)'에서 선정하는 '2021년 살기 좋은 도시'(2021 : Liveable Cities Index) 순위 11위에 올랐다.

도시 라이프스타일 탐구로 각국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호응이 높은 잡지 '모노클(Monocle)'은 매년 7/8월 '삶의 질(Quality of Life)' 특집호에서 전 세계 살기 좋은 도시 순위를 발표한다. 2009년 순위가 발표되기 시작한 이후, 서울시는 올해 처음 순위권인 11위에 진입했다.

'모노클'은 이번 조사에서 기존에 사용했던 평가 항목 중 코로나19 상황에 맞지 않는 평가 항목을 제외하고, 팬데믹 상황에서도 삶의 질을 보존하면서 일상 복귀 후 회복할 준비가 된 도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11위에 오른 서울시는 거대한 도시 규모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높고 다양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도시로 평가되었다.

특히 '모노클'지는 저렴하고 이용자 친화도가 높은 서울의 대중교통을 높게 평가했다. 또한, 홍대, 혜화, 이태원 등 일상 속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지역들도 서울의 장점으로 들었다.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도 서울은 인구 밀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방역과 동선 추적을 통해,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확산하는 것을 방지했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서울 시민들이 공공 안전을 존중하여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유지한 점 역시 지역의 성공 요

인으로 꼽혔다.

이번 조사에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는 1위 코펜하겐, 2위 취리히, 3위 헬싱키, 4위 스톡홀름, 5위 도쿄, 9위 타이페이, 12위 밴쿠버, 14위 베를린, 20위 로스앤젤레스 등이 꼽혔다.

특히 인구 1,000만 급 규모의 대도시로는 서울 외 도쿄, 로스앤젤레스만이 20위권 안에 들었다는 점에서 금번 서울의 약진은 더욱 두드러진다.

한영희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앞으로도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 평가에 있어서 서울이 세계에서 높은 평가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울 우수 정책에 대한 글로벌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영등포구, '지역상권 살리는 착한 소비 함께 해요' "영등포사랑상품권, 13일부터 판매"



영등포구가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영등포사랑상품권 발행을 재개한다.

영등포사랑상품권은 영등포구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으로 소비자는 상품권 구매 시 할인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소상공인은 결제수수료 0%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는 영등포사랑상품권이 2020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발행액 550억 원과 누적 결제액 480억 원을 기록하며 87%의 높은 결제율을 유지하고 있어 지역 내 골목상권 활성화에 꾸준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해 350억 원 규모의 발

행분이 매 회차 조기 완판되며 큰 호응을 얻자, 올해 영등포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작년보다 50억 원 늘려 총 400억 원을 발행하기로 했다. 올해 발행분 400억 원 중 절반인 200억 원 규모의 상품권은 상반기에 발행되어 6주 만에 완판되었다.

하반기에는 잔여 발행분 200억 원을 7월 13일과 9월 초, 두 번에 걸쳐 100억 원씩 나누어 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여름휴가뿐만 아니라 추석 연휴 기간에도 상품권이 소진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등포사랑상품권은 비필제로페이, 체크페이 등 20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다. 구매 시 할인은 10%, 1인당 월 7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발행 일로부터 5년 이내 사용하면 된다. 상품권은 영등포구 관내 1만

6,000여 개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학원·병원·안경점·가구점·가전제품점 등 다양한 결제처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사용이 급증한 배달앱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 가능 배달앱은 명동, 멍개비, 위메프오 등 서울시 제로배달유니온 협력사 배달앱 16곳이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조치로 외부 활동은 제한적이지만, 배달앱을 이용하여 지역상권을 살리고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착한 소비에 동참할 수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견디고 있는 관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분들의 매출 증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위축된 지역경제의 회복과 구민 생활 안정을 위해 더욱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김현일기자

도봉구 이동진 구청장, 제161차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 끝으로 협의회장 임기 마무리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지난 7월 9일 오전 9시 영상회의를 열어 제161차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보훈예우수당 등 2021 서울시-자치구 복지대타협 추진 관련 사항들을 점검하고,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민선7기 4차년도 새로운 임원을 선출했다.

이번 회의를 끝으로 이동진 협의회의장을 비롯한 김수영 사무총장(양천구청장), 정원오 감사(성동구청장) 등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민선7기 3차년도 임원들의 1년간의 임기가 마무리되었다. 민선7기 4차년도의 협의회는 이성 구로구청장이 바통을 이어간다.

이동진 협의회의장은 마지막 회의를 주재하며, “돌이켜 보면 협의회의장으로 보낸 지난 1년을 참 다사다난했다.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 서울시장의 권위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취임으로 서울시구청장 협의회의장의 자리가 많이 무겁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저에게는 협의회의장이라는 책임 기간은 도봉구라는 지역적 한계를 넘어 스물네 분의 구청장님들과 서울시정을 논하고, 사회적 현안에 대해 목소리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그간의 소회를 전했다.

한편 이동진 협의회의장은 코로나19와 서울시시장의 권위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도 특유의 정중동(靜中動)의 집착함과 예리한 정무적 판단으로 협의회를 더 높은 연대와 협력의 단계로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선7기 3차년도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정과 민생현안에서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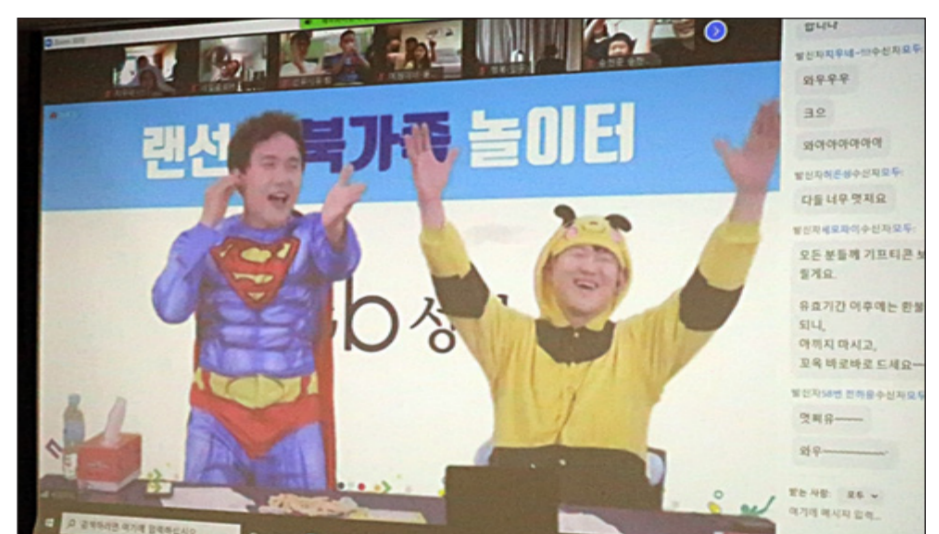
울시-자치구 상생.협력을 위한 사무권한 재정립 촉구 박원순 시장 결위에 따른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임장문 발표 8.15 서울 대규모 집회 철회 호소문 발표 통신문보권 보장을 위한 '무료 공공와이파이(S-net) 사업' 확대 착한임대인 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서울시-자치구 복지대타협 TF운영 마을버스 발전 및 제도개선을 위한 TF구성 및 서울시 건의 '중대재해처벌법'과 '아동학대방지' 관련 제도적 보완 촉구 및 자치구 대응 자치구-서울시 협력형 재난지원금 지급 탈탄소 및 ESG 금고 지정 의결 등 '2050년 탄소중립 실현' 위한 방안 제시 등 굵직한 성과들을 남겼다.

도봉구 관계자에 따르면 이동진 협의회의장은 향후 민선7기 남은 임기 동안 창동 신경재중심지 조성 등 도봉구청장으로서의 본연의 소임에 집중하고,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장, 한국인권도시협의회장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성북구 가족은 랜선에서도 신나게 놀아요!



서울 성북구가 11일 제10회 세계 인구의날을 기념해 “랜선 성북가족 놀이터”를 개최했다.

세계인구의날은 세계 인구가 50억 명을 넘은 1987년 7월 11일을 기념하기 위해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이 제정했다. 인구 수, 인구 분포, 고령화 등 다양한 인구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환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불균형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확산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인구의날'을 기념하고 있다.

성북구는 매년 인구의날을 기념해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는 특별히 랜선으로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비대면 가족행사 “랜선 성북가족 놀이터”를 마련했다.

관내 5세부터 10세(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30여 가족이 “랜선 성북가족 놀이터”를 통해 우리집 박물관, 신나는 랜선 슈퍼맨 놀이터, 플라잉 티슈 챔피언, 창의적 과제게임,

가족사랑 그림그리기, 랜선 골든벨 등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즐기며 모처럼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를 날려 보냈다.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자녀와 함께 “랜선 성북가족 놀이터”에 참여한 길음1동 한** 씨(35)는 “랜선 성북가족 놀이터를 통해 오랜만에 온 가족이 신나게 놀고 웃을 수 있었다”면서 “어느덧 일상이 된 비대면 문화가 돌아보게 되었고 이런 사회적 흐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노고도 생각할 수 있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성인에게 고향이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만큼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유년의 추억을 만들어 주는 것도 도시의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코로나19 속에서도 온가족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행복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랜선 성북가족 놀이터 등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하겠다”고 했다.

강성원기자

아산시, 야밤에 사업장폐기물 약1만1000톤 불법투기 적발

아산시·경찰·한국환경공단·금강유역환경청 합동 잠복, 2명 검거



아산시가 아산경찰서, 한국환경공단, 금강유역환경청과 합동 단속을 펼쳐 어둠을 틈타 폐공장에 대량의 사업장폐기물을 투기한 일당을 적발했다. 시는 지난 9일 합동 잠복을 통해 밤

9시경 도고면 시전리 폐공장에서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현장을 적발해 폐기물 운반차 1명과 폐공장 입구 감시자 1명 등 2명을 검거했으며 현재 아산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6일 전국적인 폐기물 불법투기 전문조직이 관내 폐공장에 투기한다는 제보를 받고 아산경찰서, 한국환경공단, 금강유역환경청과 단속방법, 역할분담 등에 관해 협의했으며, 이 조직이 승용차로 폐공장 주변을 수시로 순찰하고 출입구를 CCTV로 감시하며 운반 차량은 5~10분 거리의 인근 휴게소에 대기한다는 제보에 따라 운반차량 동선 등을 확인해 9일 저녁 7시부터 5개 구역으로 나눠 잠복했다.

밤 8시 30분경 운반 차량이 폐공장으로 진입한 것을 확인한 후 9시경 현장을 급습해 폐공장 입구 감시자 1명과 인근 휴게소에 대기 중인 운반차량 운전자 1명을 검거했으며 현장 작업 지시자 등을 뒤쫓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날 적발한 폐기물은 폐합성수지류 등으로 투기된 장소는 사람이 숲으로 우거져 안쪽이 보이지 않는 2층 규모의 폐공장이며 그 양이 약 1만1000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사건 수사는 아산경찰서에서 진행하며 투기된 폐기물은 관련자 처벌이 확정되면 시에서 처리 명령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폐공장, 폐창고에 폐기물을 투기하고 도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 책임이 토지·건물주에도 있는 만큼 임대차계약 시 사업내용 및 감시에 더 신경을 써 주기 바란다”며 “인근 주민들은 대형 화물트럭이 폐공장이나 창고, 야산에 수시로 운행되는 등 의심스러운 상황을 발견할 경우 신속히 시에 신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아산이나 폐공장, 폐창고에 폐기물을 투기하고 도주하는 사례는 2019년 말 기준 120만 톤을 웃돌아 환경부는 투기자와 토지·건물주에 국한해 처벌하던 폐기물관리법을 개정, 투기에 가담한 전원을 조치하도록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으나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재은기자

영광군, 특별방역점검단 위생업소 현장점검 실시



영광군은 최근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과 4차 유행 진입에 따라 특별방역점검단을 통하여 감염이 취약한 위생업소에 대한 방역점검을 지난 8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별방역점검단은 작년 4월부터 운영되었으며 영광군 스포츠산업과 18명으로 구성되어 2인 1조로 핵심 방역수칙 지도점검 및 거리두기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관내 음식점·카페·유형시설, 목욕탕·이미용·숙박업 등 위생업소 약 500개소이며, 점검 내용은 이용인원 제한 준수, 올바른 마스크 착용, 운영자 출입명부(전자 또는 수기), 발열체크 및 4주 보관 후 폐기,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여부, 소독·환기 실시 여부 등 업종별 방역수칙 이행 여부이다. 또한, 이번 점검을 통하여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영업주들의 고충을 청취하여 개선점을 찾고, 미흡한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 또는 행정 처분 조치하여 한층 더 나은 방역환경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최근 잇따른 일일 확진자 1,000명대 돌파와 지역 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우리 군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앞으로도 특별방역점검단을 통한 주기적인 점검 활동을 통하여 지역 내 코로나 감염 확산을 예방하고 빠른 시일내 평범한 일상을 되찾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군민 여러분께서는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고, 불필요한 약속 및 외출을 자제하여 수도권을 비롯한 타지역 왕래 등 이동을 최소화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만기자

경기도, 시화호 불법어업 근절시까지 합동단속 실시

시화호 도-시·군-관계기관 합동 불법어업 단속 실시

경기도는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5월을 시작으로 근절 시까지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 지역은 화성 형도·음도, 안산 방어머리, 시흥 거북섬 등 시화호 전 지역으로 ▲무허가 어업행위 ▲무등록 어선 ▲불법어구 조업 및 적재 ▲비어업인 수산자원 불법 포획·채취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이번 시화호 불법어업 단속은 도, 시·군, 평택해양경찰,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 공조 육·해상병행 합동단속으로 불법어업 발생 우려가 높은 야간 새벽 시간 대 위주로 단속 중이다.

불법어업 적발 시에는 수산관계 법령 등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게 된다. 현재까지 시화호 해상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어구 71개를 강제 철거하고, 불법어구 적재 1건을 적발, 사법처분을 실시했다.

또 불법행위 원천차단을 위해 시화호 형도, 음도 등의 방치선박을 철거하고 불법사각지대인 형도 선착장 등 주출입구에 차단시설 및 CCTV 등도 설치한다.

김성근 도 해양수산과장은 “지속적인 합동 지도·단속을 통해 시화호 불법어업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할 것”이라며 “홍보·계도를 병행해 자율적인 준법 조업 질서를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시·군 및 평택해양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화



호 불법어업 합동 단속을 실시해 무허가 어업 5건을 적발, 사법처분 한

바 있다.

최정근기자

서울시, 15일부터 전국 최초로 불법 주정차한 공유 전동킵보드 견인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로·보도 위 등에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킵보드 견인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15일부터 성동구, 송파구, 도봉구, 마포구, 영등포구, 동작구 6개 자치구부터 시작하고, 나머지 자치구로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견인된 공유 전동킵보드 업체에는 견인료 4만 원과 보관료(30분당 700원)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7월1일부터 2주간 5개 자치구(성동, 송파, 도봉, 마포, 영등포)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했으며, 이 기간 동안은 견인조치만 시행하고 견인으로 부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동작구는 시범운영 없이 15일부터 즉시 견인조치를 시행한다.

서울시에는 현재 14개 업체, 55,499대('21년 6월 기준)의 공유 전동킵보드가 영업 중이다. 공유 전동킵보드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시민에게 이동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지만 부분별한 주차문제로 보행 환경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이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불법 주·정차 전동킵보드 견인에 나서게 되었다.

먼저, 시민들의 보행환경에 위협이 되는 정도에 따라 즉시 견인구역과 일반보도를 구분해 견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즉시 견인구역은 사고 발생 우려가 크고, 점차보도 위 등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을 끼치는 5개 구역으로 견인업체가 발견 시 즉시 견인한다.

일반보도 상 주차기기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 전후 특색인 '퍼스트-라스트 마일'(First-Last mile) 이동수단으로서 PM의 기능을 고려해

시민이 불편을 느껴 민원 신고 시 공유 전동킵보드 업체가 자율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3시간의 유예 시간을 부여한다. 유예시간 동안 공유 전동킵보드 업체에서 수거 및 재배치 등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견인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방치된 기기를 간편하게 신고하고 직접 처리결과까지 확인 할 수 있는 신고 홈페이지도 운영을 시작한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기기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하면 업체명, 기기위치 등을 입력하지 않고 손쉽게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홈페이지는 주소창에 사이트 주소를 직접 입력하거나 검색 포털(네이버, 다음)에서 '전동킵보드 신고시스템' 검색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 건은 공유 전동킵보드 업체에 실시간으로 전달되어 수거 및 재배치 등 조치하도록 하고, 3시간 이내 미조치 시에는 견인업체로 정보가 전달되어 견인된다. 이에 대한 조치 결과 또한 직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교통 패러다임의 변화로 퍼스널 모빌리티가 시민들의 신교통수단으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공유 전동킵보드 업체의 자체적인 수거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고,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경상남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가스시설 합동안전점검



경상남도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자연재난으로 인한 가스시설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를 비롯한 시·군, 한국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사 등이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집중호우나 태풍 등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도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생활밀접 가스공급시설인 LPG소형저장탱크, 도시가스 정압기시설, 교량 노출배관, 도시가스 배관 공사장의 안전관리 적정 여부를 표본으로 안전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시·군도 한국가스공사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고압가스 제조 시설, 충전시설, 판매시설 등을 점검할 예정이며, 가스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가스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가스사고는 일반 가정집이나 다중이용시설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철저한 사전점검과 예방이 요구된다”며, “철저한 안전점검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안전한 가스 사용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광용기자

광양시, 주·정차 금지구역 추가 지정 및 단속 일정 예고

광양시는 소방차량이 화재 장소에 원활하게 접근해 신속하게 소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주변에 주·정차 금지와 관련해 적색노면 표시 40개소와, 교통 흐름이 복잡한 광양읍 덕레리 1806번 지선 도로(대림 사거리), 광양읍 918-2번 지선 도로(자연어린이집 앞)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단속 일정을 행정예고했다.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은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 행정예고 기간은 2021년 7월 7~27일(21일간)이며, 단속은 오는 8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2019년 4월 30일 도로교통법 개정 및 같은 해 8월 1일 동법 시행으로 인해 소방시설 주변 적색노면 표시 65개소(기존 25, 신규 40)에 주·정차할 경우 과태료(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를 부과한다.

시는 소방시설에 적색노면 표기를 할 수 있도록 광양소방서와 협조 체계를 유지하며 정비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광양시는 상습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가밀집 지역 등 민원 발생이 잦은 구간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며,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차량 흐름 확보로 선진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도록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바라고 있다.

조기석기자

오산시, 공중화장실 32개소 비상벨 운영실태 합동점검

오산시는 김영희 시의원, 오산경찰서, 시 관련부서와 (사)민간기동순찰대 연합여성대, 안전지도사협회가 관내 공중화장실 32개소에 설치된 안심 비상벨의 정상 작동 여부, 112 상황실 알람 작동 여부, 경광등 점등 및 경보음 작동 확인 등을 위해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민간합동점검은 공중화장실 내 범죄를 예방하고자 설치한 안심 비상벨을 중점 점검하였으며, 안심 비상벨은 음성인식을 통해 112상황실로 연계되며 범죄를 예방하는 시

스템이다. 김영희 시의원은 “지구대와 멀리 있는 외곽의 공중화장실은 112상황실 알람 및 가까운 아파트 관리소 등 주변 도움받을 수 있는 곳에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으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오산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김태희 환경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수리가 필요한 장비에 대해 즉각 조치할 계획이며, 향후 정기적인 점검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화장실

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남주기자



용인시, 올해 상반기 행안부 빅데이터 부문 공모사업 3개 선정

용인시는 올해 상반기 행정안전부 빅데이터 공모사업 3개에 선정돼 국비 총 2억2800만 원과 60명의 청년 인턴 인력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 3~5월 행안부가 지자체의 빅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해 공모한 '공공빅데이터 청년 인턴십 사업', '공공빅데이터 기업매칭 지원 사업', '공공빅데이터 분석참조모델 정립 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선정됐다.

먼저 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십 사업은 공공분야에 필요한 데이터 전문인력 지원과 양성을 목적으로, 청년인턴을 선발해 청년들에게는 행정기관의 실무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공공기관에는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도로교통공단에 이어 전국에

서 2번째로 많은 40명의 인력을 지원받아 오는 9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청년들에게 풍부한 실무경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며, 동시에 급증하는 빅데이터 분석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공공빅데이터 기업매칭 지원 사업은 공공데이터 구축·활용이 필요한 수요기관과 데이터를 보유한 IT기업 등을 연결하고 인력을 지원해 정책 개발·집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필요한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시는 지난 3월 행안부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공모에 선정됐으며, 서류심사와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거쳐 A등급을 받아 국비 지원 상한액인 2억 원 전액을 확보하는 쾌거를 올렸다. 시는 다음달부터 12월까지 관련

업체와 협약을 진행해 행안부가 지원하는 20명의 청년인턴과 수요자 기반 Open API 구축 및 개방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공빅데이터 분석참조모델 정립 사업은 분야별 분석모델의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표준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시는 대전광역시, 서울 서초구, 충남 예산군, 충북 충주시, 전북 익산시와 함께 참여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으며 다음달부터 12월 까지 '공공시설물 특성 기반의 최적 입지 선정 통합 모델'을 주제로 전국 표준 모델을 정립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는 지난해부터 적극적으로 빅데이터 업무를 추진하며 용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면서 "양질의 데



이터를 구축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하남시, 맑은 물 공급 원도심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

하남시는 원도심 내 낡은 수도관을 교체해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도물을 공급하고자 '노후관 교체공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덕풍동 지역 등의 상수도관이 설치된 지 20년 이상 지나 누수와 탁수, 적수 등이 발생하고, 수압 저하와 단수 등으로 주민 불편이 지속되는 데 따른 것이다.

공사 대상은 ▲덕풍동 370-73 프라임 아파트 일원 ▲천현초등학교 일원 총 2개 구역이다.

덕풍동 지역에는 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해 총길이 1,760m에 관경 80~200mm 관으로 교체하고, 천현초 일원에는 10억 원을 투입해 총

길이 839m, 관경 100mm~150mm 관으로 교체한다. 공사는 12월 준공 예정이다

시는 이번 공사가 완료되면 덕풍동 지역 등 2600여 세대 6500여 명 주민이 깨끗한 수도물을 공급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사는 노후 관로를 교체해 시민에게 양질의 수도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사에 따른 이면도로 차량 통행 불편 및 일정 구간에서 간헐적 단수·적수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박강호기자



김포시 공원관리과장, 시민이 행복한 공원 조성을 위한 주요 공원사업 현장행정 실시



김포시 공원관리과장은 관내 주요 공원사업지에 대해 7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의 현장행정을 실시, 완료했다.

지난 7월 1일자로 공원관리과장에 새로 부임한 정대성 과장은 김포시 공원의 전반적인 현황과 전략 사업지를 두루 돌아보며 당면한 과제에 대해 현장 보고받고, 직접 꼼꼼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5일(월)에는 운양동 조류생태공원을 방문하여 쿨링미스트 시스템 조성 등을 확인하고, 6일(화)에는

한강신도시 수체계시설의 전반적인 시스템 파악을 위해 금빛수로와 수처리장을 답사했다.

7일(수)에는 호수공원 잠미울 조성(2단계) 등 한강신도시 주요 공원의 사업지를 둘러보고, 8일(목)에는 구래동 문화의 거리 공원환경 개선공사 대상지 현장조사 후 실시 설계용역 업체와 실무협의를 가졌다.

9일(금)에는 걸포중앙공원 보행환경 개선 및 사우제5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지 등을 방문하

여 진행 경과를 확인하고, 신속하고 완벽하게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종 현안을 챙기는 것으로 5일간의 강행군 마쳤다.

정대성 공원관리과장은 "관내 주요 공원 현장행정을 통해 각 사업장을 면밀히 확인하였다"고 말하며 "진행 중인 사업은 차질 없이 완벽하게 추진토록 하고, 그 외 시민 요구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하여 시민이 행복한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동희기자

안성시사계절썰매장, 2021년 여름시즌 물 썰매 OPEN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0일부터 안성시사계절썰매장을 오픈하여 오는 8월 22일까지 '여름시즌 물 썰매'로 고객들을 맞이한다고 밝혔다.

사계절썰매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오전(10시~12시)과 오후(14시~16시) 각 2시간씩만 운영되며, 인원은 선착순 100명으로 제한한다. 단, 코로나 백신 접종자는 인원 제한 기준에서 제외된다.

사용 요금은 종전 요금의 50%로 하고, 안성시민이나 감면대상은 중복 할인을 적용받아 최대 75%까지 할인된 금액에 이용할 수 있으며, 코로나 백신 접종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최갑선 이사장은 "무더운 여름철, 사랑하는 가족들과 시원한 썰매장을 방문하여, 더위를 식히고 소중한 추억도 쌓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원종규기자



구리시, 환경부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공모사업 선정

안정적인 수질관리와 에너지 사용량 절감...스마트 그린 하수처리장 구현

구리시는 환경부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공모사업'에 갈매수질복원센터 스마트 시스템 구축 사업이 선정되어 국·도비 30억 4천3백만 원을 확보하게 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국판 그린뉴딜 분야 중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과제의 일환으로, 하수처리 전 과정에 최신 정보통신 기술(ICT)을 활용한 실시간 관측(모니터링)과 원격 제어·관리 등을 도입해 디지털 기반의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여 최적의 제어와 운영으

로 안정적인 수질관리와 에너지 절감, 휴먼 에러 제로화를 실현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갈매수질복원센터 스마트 시스템 구축사업'은 2022년부터 2년간 총 예산 40억 5천7백만 원을 투입하여 ▲1단계 IoT(사물인터넷)기반의 자동측정 시스템 구축 ▲2단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3단계 AI기반 의사결정 고도화 등 단계별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전력, 약품 등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안승남 시장은 "갈매수질복원센터 지능화 시스템 구축으로 스마트 그린 하수처리장을 구현하여, 에너지 절감과 안정적인 하수처리로 갈매동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증진시키고 2050 구리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갈매수질복원센터는 갈매공공 주택지구에서 발생한 일일 7,600톤의 하수를 분리막 공법으로 처리하여 갈매천 유지용수, 도로정수시스템 용수, 조경용수, 살수차용수, 갈매고등학교 화장실용수 등으로 전량

재이용하고 있다.

최만식기자



모두를 위한 안전벨트, 양쪽 귀에 걸어주세요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 모두가 함께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 주세요.



울산시, 2022년 전국체육·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일정 확정

울산시는 2022년 개최되는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약칭: 전국체전)'와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약칭: 전국장애인체전)' 개최 일정을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승인을 받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체전이 순연되어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울산교육청, 울산광역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등 관계기관·단체의 의견을 면밀히 수렴했다.

국내·외 주요행사 일정과 10월 울산지역 기후, 학사 일정 등도 고려했다.

'제103회 전국체육대회'는 내년 10월 7일부터 10월 13일까지(7일간) 울산종합운동장 등 71개 경기장에서 47개 종목의 경기를 치른다.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내년 10월 19일부터 10월 24일까지(6일간) 40개 경기장에서 30개 종목을 경기를 치른다.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체육대회인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이 개최되면 국내·외 선수단 4만 여명과 관광객이 울산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는 울산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지난 6월말 구·군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제1차 준비상황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이를 토대로 체전 경기장 준비와 숙박시설, 음식점, 교통, 환경 및 관광지 정비 등 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장영수 울산시 전국체전기획단장은 "코로나 극복 이후 움츠렸던 경기가 회복되고 새로운 희망과 활력



을 불어넣는 전국체전을 울산에서 개최하게 되어 책임감이 크다."면서 "전국민적 화합과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기현/기자

청년 동아리 다모여라! 함안군, 청년 동아리 지원사업... 최대 200만원

함안군은 청년친화도시 본격 추진을 위해 '2021년 함안군 청년 동아리 활동지원 공모' 사업을 벌인다.

청년들이 다양한 관심사에 대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내에서 취미·관심 활동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청년 커뮤니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공모대상은 공고일 기준 함안군에 주소를 둔 19세에서 39세까지 청년으로 구성된 단체나 모임으로 동아리별 최소인원은 3인 이상이다. 군은 30개 팀을 선정해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동아리 유형은 문화예술, 생활취미, 봉사활동, 자기개발 등으로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다. 정치, 종교, 단순 친목, 일회성 행사, 여행, 영리 목적 등의 동아리와 유사 사업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활동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12일부터 26일까지다. 참여를 원하는 동아리는 관련 서류를 구비, 함안군 혁신성장담당관 인구청년담당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조건,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군은 활동계획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 서면 심사를 거쳐 8월초 지원 대상을 선정할 후 보조금 교부 전 활동비 사용수칙 및 운영계획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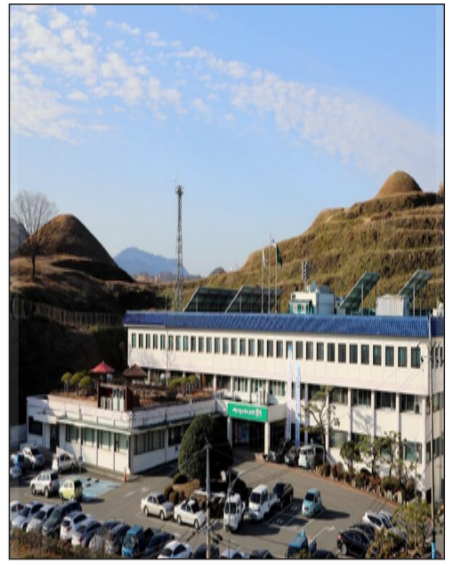
함안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 동아리가 활성화하기를 기대한다"며 "다양한 정책으로 청년이

원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12일부터 26일까지다. 참여를 원하는 동아리는 관련 서류를 구비, 함안군 혁신성장담당관 인구청년담당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조건,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군은 활동계획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 서면 심사를 거쳐 8월초 지원 대상을 선정할 후 보조금 교부 전 활동비 사용수칙 및 운영계획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함안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 동아리가 활성화하기를 기대한다"며 "다양한 정책으로 청년이



활기찬 함안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영훈/기자

창원시 허성무 시장, "지방자치 신지평 열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 건의

내년 1월 13일 특례시 공식 출범을 6개월여 앞둔 가운데,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한 고양·수원·용인 4개 특례시장이 쉼 틈 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한 백근기 용인시장 등 4개 특례시 주요 인사는 12일 오전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을 방문해 이신남 자치발전비서관을 면담하고 성공적인 특례시 출범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면담에서는 특례시 사회복지급여 기준 대도시 수준 상향 등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특례권한 확보 요청과 함께, 이를 위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지방자치법 시행령 등의 법령 제·개정 방안 및 특례권한 이양을 추진할 전담 기구 설치 등이 논의됐다.

앞서 4개 특례시장은 지난 2일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특례시에 대한 구체적인 권한 부여 및 이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특례시 전담 기구 설치를 건의했다. 이어 8일에는 4개시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등 내년에 있을 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작년 12월 9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창원·고양·수원·용인 4개시는 2022년 1월 13일 특례시로 공식 출범한다. 특례시는 지역 특성과 도시의 역량에 걸맞은 특례를 인정받아 더 많은 자율권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남궁영기/기자

함양군 자원봉사센터, '탄소배출 0(제로)'! 탄소중립교육 실시

함양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12일 오전 기관단체청사 3층 회의실에서 탄소중립교육을 실시하였다.

'2050 탄소중립! 바로지금 우리부터'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교육은 자유통연맹, 바르게살기운동, 소비자교육 회원 25명이 참석하였으며,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탄소중립교육을 실시하고 직접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물품을 제작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구상 자원봉사센터장의 강의로 진행된 탄소중립교육에서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 대한 기본 이해 및 지역에서의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사례 중심의 교육이 진행되었다.

이어 열린 체험활동에서는 울인원바다 바 만들기 체험을 통해 실생활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

정구상 센터장은 "오늘 교육을 시

작으로 많은 분들이 환경 위기를 인식하고 일상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앞으로 지속적으 탄소중립실천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캠페인 활동을 통해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탄소중립이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산림 등), 제거해서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해 탄소의 순배출량이 '0'으로 만든다는 의미로, 지난해 10월 말 정부에서는 2050년까지 이러한 탄소 과소비 사회와 이별한다는 의미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최광용/기자



물 통합관리 전략 도민과 함께 만든다 거창군, 암 극복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운영



충남도는 12일 홍성 제이컨벤션웨딩홀에서 제2차 물 통합 관리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4대 수계 유역별 제1차 물 포럼'을 개최했다.

물 통합관리 중장기계획은 10년 단위 수립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정부 조직 개편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물관리 전략을 마련하고 실행 사업을 발굴하고자 수립하는 수질·수생태·수자원 종합 기본 계획이다.

이번 포럼은 지난 5일 삼포호·안성천, 8일 금강에 이어 이날 금강서해까지 4대 수계 유역을 총 3회로 나눠 진행했다.

도민이 바라보는 4대 수계 유역별 물관리 현안 도출을 주제로 연 이번 포럼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도민 등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물 통합관리 계획 수립 방향을 설명하고 유역별 현안 도출 및 물 통합 비전, 미래 키워

드를 제시했다.

오혜정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이 물 통합관리의 개념과 제2차 물 통합관리 수립 방향을 설명했으며, 금강서해 수계 유역의 현황을 발표했다.

이어 포럼 참석자를 수계별 팀으로 나눠 수질·수생태·수자원 등 물 관련 분야별 전문가와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팀별 발표를 진행했다.

도는 앞으로 제2차 물 포럼을 열고 도민의 정책 제안을 받을 계획이며, 정책 선호도 조사를 통해 물 통합관리 정책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할 방침이다.

빈준수 도 물관리정책과장은 "이번에 수립하는 제2차 충청남도 물 통합관리 중장기계획은 2030 물관리 정책을 이끌어 갈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할 것"이라면서 "물 포럼을 통해 도출한 내용을 검토·반영해 도민과 함께 실행계획을 만들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기자

자조모임, 체험형 산림치유프로그램 등 다양한 건강관리 사업 펼쳐

거창군은 '군수 공약 암환자 건강주치의제 사업'의 일환으로 '암 극복 맞춤형 운동프로그램'을 4월 22일부터 7월 1일까지 주 1회 운영해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프로그램은 경남지역암센터 소속 강영훈 운동관리사의 지도 하에 폼롤러, 마사지볼, 세라밴드를 활용해서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이완하고 자신의 신체 상태에 맞는 다양한 자세의 근력운동으로 심폐기능을 증진했다.

또한, 운동 외에도 자조모임을 통해 암에 대한 경험을 공유했으며, 체험형 산림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심리적인 어려움에 대한 완화와 해소의 시간을 가졌다.

거창읍에 거주하는 박 씨는 "암 재발과 전이를 막는데 운동이 꼭 필요한 것은 알았지만 어떤 강도로 얼마나 해야 하는지 몰라 시작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맞춤형 운동프로그램으로 내 몸에 맞는 운동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었다"며, "일상생활에도 자신감과 활력이 생겨 너무 고맙고, 계속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혔다.

군인모 거창군수는 "앞으로도 암환자가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하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건강관리사업을 펼쳐 군민의 암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병철/기자



거제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거제시는 2021년 7월 건축물, 주택 및 선박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를 266억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을 기준으로 건축물 및 주택,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주택분은 납세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고지되, 본세 기준 10만원 이하하는 7월에 전액 연납고지된다.

올해부터는 주택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세대1주택자에 대하여 과세표준 구간별 최대 50%에서 최소 17.6% 세율이 인하된 재산세 세율 특례가 적용된다. 특히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주택은 50%의 세율 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1세대1주택자는 2021년부터 3년간 별도의 신청 없이도 특례세율이 적용된 주택분 고지서를 받게 되어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16일부터 8월2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납부 등을 통해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으로 재산세 고지서 전면에 인쇄된 QR코드를 스캔하면 지방세 납부 안내로 자동 연계되어,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사이트와 ARS 납부시스템으로도 바로 연결이 가능하다.

한편 재산세는 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게 되며, 고지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강영훈/기자



전남도 김영록지사, “강진·해남·진도·장흥 특별재난지역 건의”

12일 비대면브리핑…현실적 지원 강조·코로나 특별방역주간 운영 발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2일 “집중호우 피해가 큰 강진, 해남, 진도, 장흥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를 비롯해 현실적 복구 지원을 하고, 코로나19 지역확산 차단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3주간 특별방역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브리핑실에서 집중호우와 코로나 방역 대책 비대면브리핑을 통해 “피해 도민이 하루빨리 안정을 찾고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시군과 함께 역량을 총동원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복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전남지역에선 지난 5~6일 해남이 최고 531mm를 비롯해 장흥·진도·고흥 등에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3명의 사망자를 비롯해 산사태, 하천·저수지 제방유실, 마을·시장·들녘 침수 등 피해가 발생했다.

김 지사는 “희생자 유가족 재난지원금과 도민안전 공제보험을 조속히 지원하고, 현재 남은 이재민 65명이 대피시설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도민 재산피해와 관련 신개축 비용 200만 원 지원, 주택개량 사업 시 최대 2억 저리 융자, 수리가 필요한 침수주택에 200만 원의 재난지원금 지원 등에 나선다. 침수된 진도 조곡시장과 주변 상가 상인에게도 도 재해구호기금 200만 원과, 경영안정자금 최대 7천만 원을 지원한다. 농작물과 수산양식장은 정밀조사로 피해를 최대한 지원하고, 폐사된 가축은 폐기물 업체에 위탁처리한다.

주요 정부 건의사항은 ▲강진, 해남, 진도, 장흥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위한 피해금액 산정 기준에 농작물, 산림작물, 가축 등의 피해 포함 ▲비닐하우스와 포도·과수 등 일부 품목

의 복구 지원단가 인상(60%→100%) ▲한우·젓소 입식 복구비 인상(30%→50%) ▲양식시설물과 전복·넙치 등 수산생물 지원단가 인상(25~33%→50%) ▲전복 치폐 복구비 산정기준 신설 등이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 보험료 산출 시 5년 중 최저값을 제외하고, 사과, 배, 단감, 뽕은감 4종의 열매 숙기 전 보상을 피해액의 80%로 상향하며, 보험 가입 품목에 블루베리, 아로니아, 석류 등도 추가할 것을 건의키로 했다.

전남도는 또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지역에서 실내외 마스크 쓰기를 의무화하는 ‘특별방역주간’을 오는 31일까지 3주간 운영한다.

김 지사는 “지난 11일 하루 19명의 확진자가 발생, 한순간 방심으로 순식간에 집단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전파속도가 빠른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하고,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20~50대 젊은층이 확진자의 64%를 차지하는 위험한 상황여서 ‘특별방역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방역주간 사적모임 허용 인원은 8명이며, 백신접종자도 언제 어

디서나 마스크를 쓰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집회·행사 수용인원은 100명으로 제한한다.

주요 권장사항은 ▲최근 7일 이내 수도권 방문자 무료 검사 ▲타 지역 방문 자제 및 방문한 경우 귀가 즉시 진단검사 ▲유흥시설과 노래방 종사자 주 1회 진단검사 ▲외국인 고용 사업주는 주 1회 내·외국인 포함 진단검사 등이다.

전남도는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발열 등 증상이 있으면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주요 관광지 방역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흥시설, 식당·카페, 학원·교습소,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종교시설 등 7종의 다중이용시설 현장단속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김 지사는 “백신접종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감염원을 차단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유행과 방학철을 맞아 가족, 친척을 포함해 외지인과 접촉을 최소화하고 만나더라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주광역시 이용섭시장, 어르신 복지현장 목소리 듣는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12일부터 15일까지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어르신 특별주간’으로 정하고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광주시는 지난 3월부터 특별주년을 운영해왔으며, 이번 어르신 주장은 소상공인, 문화예술, 청년·청소년 주간, 여성·보육주년에 이어 다섯 번째다.

먼저 12일에는 동구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운영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시·구 노인복지관장 및 이용 어르신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이어 동구 관내 경로당을 방문해 코로나19로 답답했을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장기요양기관에서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13일에는 서구 시니어클럽교육장

과 시장형일자리 현장을 찾아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14일에는 하루 40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했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일부 운영이 중단된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의 시설들을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점검한다.

마지막으로 15일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과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 댁을 방문해 관련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이용섭 시장은 “이번 특별주간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지침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추진되면서 경로당, 복지관 등 노인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이용이 제한돼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듣고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사회서비스 제공방식 등을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친고령사회 정책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계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코로나19 극복 특별주간’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어르신 특별주간 기간 중에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구례군, 감 정지전정 전문농업인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구례군은 지역특화작목인 감의 고품질 생산을 위한 정지전정 전문농업인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교육생 모집은 30일까지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3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교육은 다음달 8월부터 12월까지 기간 중 총 12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교육과정은 전문가를 초빙하여 감 정지전정 개념, 수형별·품종별 전정 이론교육과 겨울전정 현장실습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정 인력 부족 현상 해소, 농한기 일자리 창출, 과실 품질향상과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감 재배시기에 맞춘 겨울전정 현장 실습은 7회에 걸쳐 진행되며 단순한 기술교육을 넘어 농업현장에서 바로 적용이 가능 할 수준의 내용으로 교육생들의 호응도와 참여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신청은 구례군청 및 구례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공지된 ‘감 정지전정 전문농업인 양성과정’ 모집요강의 신청서류를 구비해 오는 30일까지 구례군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으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과수 정지전정은 고품질 과실생산과 생산비 절감에 직결되는 재배기술이다”며 “이번 교육과 더불어 우리군 주요 작목에 대한 전문기술교육과 경쟁력 있는 품목 도입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우리군 농업 경쟁력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관련문의는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남출, 최상홍/기자

목포시, 주택·건축물·선박 재산세 부과



목포시가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198억6천4백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8월 2일까지 가상계좌, ARS, 신용카드,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고지했다.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이하 주택본 재산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씩 인하된다. 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

월에 절반씩이 각각 부과된다.

한편 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그동안 지방세를 감면할 수 없었던 고급요양장 등이 코로나로 인한 집합 제한 및 금지 명령으로 영입이 금지된 경우 감면할 수 있음에 따라 시의회 감면 의결을 거쳐 올해 7월 건축물 재산세에 대해서만 중과세율을 감면해 일반세율로 과세했다.

또한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은 임대료 인하율만큼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아직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목포시청 세정과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차원에서 납세자들이 은행 등에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 위택스나 모바일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으로 납부하기를 권유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동일/기자

담양군, 중앙로 전선 지중화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담양군은 최근 담양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주민,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담양읍 전선 지중화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총 사업비 50억 원이 투입되는 지중화사업은 22년까지 담양시외버스터미널~만성교 1.4km 구간 내 한전주·통신주를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작업구간 별 상인회 및 개별 상가 홍보와 비산먼지 감소를 위한 살수차 사용 등 주변 상인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나해 지중화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한국전력공사, 한국교통신과 협약을 체결했으며, 군은 올해 8월 공사를 시작해 2022년 6월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지중화 사업이 추진 중인 담양읍 원도심 활성화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담양읍 시가지

의 활력을 불어 넣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중화사업이 완료되면 안전한 보행공간 확보와 아름다운 경관 조성으로 담양읍 도심이 새롭게 거듭날 것”이라며 “사업 추진으로 인한 소음과 비산먼지 발생, 통행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주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흥곤/기자

ZOOM

들여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은 영양

영양군 YEONGYANG-GUN

길

천년전 이어온 옛길의 아름다움, 영양읍사무소 803017

빛

별이 쏟아지는 밤, 영양읍사무소 803017

숲

한국의 자연, 아름다운 숲, 조지훈과 추사마을

심

자연과 벗하던 선비의 기쁨이 깃들었다, 영양읍사무소

맛

사백년전 이어온 반가의 레시피, 영양읍사무소 803017

영양

자연의 아름다움, 영양읍사무소 803017

영양 들여다보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김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ida INTERNATIONAL DARK SKY ASSOCIATION citiuslow

- 영양의 자연: 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신계곡, 참벽공원, 측백수림, 외씨비전길
- 영양의 역사: 음식다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 영양국제박물관, 반달별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연생태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영양산촌생활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당진시, 홈케어서비스 '애니맘' 발대식 가져 은평구, 노인일자리 유공자 표창 수여

당진시가 각 읍면동 여성 이장단, 인구지킴이, 여성주민자치위원, 당진형 여성일거리 참여단 등 55명의 애니맘 지역활동가를 구축하고 12일 '애니맘서비스' 발대식을 가졌다.

이번 달부터 올해 10월까지 시범 실시 운영하는 애니맘서비스는 기존 사회복지 정책의 범주 외에 틈새 돌봄이 필요한 영역을 발굴하고 지역의 여성일거리로 연계할 계획이다.

서비스 대상은 14개 읍면동 당진 시민으로 1인 가구와 심신이 힘든 이웃, 취약계층, 육아세대 등에게 ▲돌봄(긴급 아이-어르신 돌봄) ▲클린(집 지정구역 정리수납, 청소, 이불빨래 대행 등) ▲음식(장보기 대행, 밑반찬 만들기 등) ▲인근 지역 동행(백신접종 등) ▲현장지원(농촌일손 등) 등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여성일거리 사업으로 각 지역별로 할당된 쿠폰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올해는 1인당 3시간 도움이 필요한 서



비스를 5회까지 신청해 사전상담 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홍승선 여성가족과장은 "포스트코로나시대 보살핌의 가치와 여성의 일거리를 연계해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당진시민 모두가 1일 3시간 이웃 같은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홍보를 확대해 내년에는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해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애니맘 활동가들이 있는 지역은 합덕, 대호지, 순성, 우강, 송산, 당진1~3동이며, 애니맘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당진시민은 각 읍면동의 애니맘 지역활동가에게 신청하거나 카카오톡 오픈채팅창에 '당진당신을 위한 애니맘'을 검색하면 된다.

김원호/기자

은평구는 지난 7일 노인일자리 유공자 28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표창 수여식은 지난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중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노인일자리 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참여 어르신 24명과 직원 4명에 대한 표창이 수여되었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자리 수행 기관별 대표 8명만 행사에 참석하여 표창장을 수여하고, 나머지 유공자는 각 기관별로 자체 전수했다.

은평구 노인일자리 사업은 현재 10개 기관, 96개 사업으로 약 4,70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전국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에서 7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될 만큼 활성화 되어 있다.

또한 은평구는 어르신 일자리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 4월 은평어르신일자리센터를 개관하였으며, 어르신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표창을 받은 한 어르신은 "일을 하며 더 건강하고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표창까지 주니 너무 감사하고, 더욱 열심히 하겠다"라고 전했으며, 김미경 구청장은 "어르신들이 사회적 고립감에서 벗어나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 것이다"고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해 우려하며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셔서 건강하게 활동하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조상순/기자

운동똥 '김민경', 대구시 홍보요정되다!

품격 있는 대구의 다양한 즐거움을 알리는 홍보대사로 변신



대구시는 7월 9일 '맛있는 녀석들', '오늘부터 운동똥' 등 예능 프로그램에서 놀라운 신체능력과 건강한 웃음으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개그맨 '김민경'을 대구시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다양한 즐거움이 있는 대구

를 국내외에 널리 알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위촉패를 전달했다.

대구시 홍보대사로 위촉된 '김민경'은 향후 2년 동안 대구의 매력들을 국내외에 널리 알려 대구의 이미지를 한층 더 높이는 홍보대사 역할

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민경'은 대구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2001년 서울로 상경, 개그콘서트, 맛있는 녀석들 등으로 주목받으면서, 최근에는 유튜브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며 데뷔 이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특히, 유튜브 방송 '오늘부터 운동똥'에서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놀라운 신체능력으로 건강한 웃음과 선한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시청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또한 '김민경'은 개그우먼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사람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전하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대세 중의 대세로 부상하고 있다.

올해 대구시는 스포츠 선수 위주의 홍보대사 위촉에서 벗어나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홍보대사를 발굴해 지난 5월 '나 혼자 산다'로 유명한 배우 '성훈'을 홍보대사로 위촉한 이후 두 번째로 개그맨 '김민경'을 위촉함에 따라 야구출신(양준혁·이

승협) 2명, 키즈크리에이터(나하은) 1명, 유명 연예인(성훈·김민경) 2명 등 총 5명의 홍보대사를 확보하게 됐다.

앞으로도 대구시는 다양한 분야의 인물을 모색해 늘어나는 시정 홍보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대구시정을 참신하게 홍보함으로써 이해하기 쉽고 감동이 있는 시정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김민경 홍보대사는 본인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로 자신의 당당하고 멋진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대구의 변화하는 매력적인 모습을 국내외에 널리 알려주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웃음과 밝은 에너지로 대구시민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홍보대사가 돼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민경 홍보대사는 "대구시 홍보대사로 위촉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기회가 될 때마다 대구의 숨은 매력까지 널리 홍보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서건석 일신여고 학운위원장, 3년을 이어온 장학금 기탁

일신여자고등학교(교장 김종서)는 서건석 일신여고 학교운영위원장의 장학금 기탁이 3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서건석 위원장은 7월 9일 일신여고를 방문해 장학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서 위원장은 2019년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3년 동안 매년 1000만원씩

장학금을 전달해왔다.

기탁된 장학금은 학생 장학금 및 교육용 기자재 구입에 쓰일 예정이다.

김종서 교장은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전달해주어 감사하며, 학생들을 훌륭한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만식/기자



주는 것이 아닌 "되는 것"을 실천하는 지역 참 일꾼

아이들에게 놀이터는 무엇일까? 마음을 쉬면서 미래의 꿈을 찾는 곳, 친구들과 함께 하는 재미있는 공간,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 느끼는 자유 정도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동대문구 전농2동에 있는 배봉초등학교는 배봉산 기슭에 있는 학교로 정문부터 학교 교실까지 경사지로 이루어져 있어 아이들이 등교하는 일이 힘이 든다.

그래서 등굣길이 재미있도록, 놀이터를 만들어 학교 교실로 들어가게 했다. 아이들은 언덕 위 학교 교실에 들어설 때 기존처럼 계단을 오르거나, 이 놀이터에서 등굣길 고단함을 벗고 하루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게 했다.

동대문구 의회 의의안의원 (전농2동, 답십리1동)은 지역의 놀이터와 같은 존재이다.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의원은 평소 복지 분야에 관심이 많다. 의의원은 관내에 있는 취약계층을 파악하여 일일이 찾아가다보면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듣고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가고 있다. 노인 복지문제에도 관심이 많아 하루하루 경로당을 돌아다니면서 어려운 노인을 찾아내 구경이나 동주민 센터로 연락해 주거비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의의원 몫이다.



관내 낡은 아파트를 찾아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벽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물리적인 힘을 지원해 환경개선에 많은 역할을 한다. 해마다 김장 자원봉사를 통해 독고 어르신들과 차상위계층에게 전달함으로써 지역민들에게 높은 사랑을 쌓아가고 있다. 또한, 지역의 우수학생이나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을 발굴하여 장학금을 전달해주고 이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2021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발의해 부모초청 모국 방문예산을 확보해 다문화가족이 한국 사회에서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가도록 지역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김원호/교수

광주시 힐스숲토리어린이집, 제13회 행복한 우리아이 사진콘테스트 대상 수상

광주시는 전국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협의회에서 주관한 '제13회 행복한 우리아이 사진콘테스트'에서 관내 힐스숲토리어린이집이 대상인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행복'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를 둔 가족과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3개 부문 총 2천여점의 작품을 출품했으며 표현의 창의성, 내용의 진실성, 사진의 기술, 인물의 표정 등을 심사해 총 142편의 수상작을 선발했다.

이중 대상을 차지한 힐스숲토리 어린이집이 출품한 작품은 아이의 엉덩이를 씻기는 어린이집 교사와 함께 얼굴 한가득 함박웃음을 짓는 세상 제일 행복한 아이의 모습을 담고 있다.

유선영 힐스숲토리어린이집 원장은 "얼굴 가득 행복을 담은 아이들의 사진이 가족 간의 사랑과 화합 및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의 중요성 인식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부모가 안심하며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어린이집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창호/기자

음성군 보건소 안전총괄과, '코로나19 대응 유공부서' 충북도지사 표창

음성군 보건소(소장 전병태)와 안전총괄과(과장 우종만)가 지난 9일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충청북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이번 표창은 범국가적인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맡은 임무에 책임을 다하며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한 유공부서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소는 코로나19 방역현장의 최일선에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면서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도내 군 단위로는 첫 번째인 지난 4월 1일 코로나19 예방접종 센터를 개소해 안전하고 신속한 접종으로 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에 기여했다.

안전총괄과는 지난해 1월부터 코로나19의 지역 내 전파를 막기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며, 해외입국자와 확진자의 접촉으로 인한 자가 격리자 관리와 방역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코로나19 대응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전병태 보건소장과 우종만 안전총괄과장은 "코로나19 대응 유공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모든 직원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며 "장기화된 감염병 사태로 모두가 지쳐있지만, 앞으로도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코로나19 종식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경기도,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산업지원 프로그램 대상33편 선정

여성 및 신진작가 활약 돋보이는 19개국 33편의 다큐멘터리 프로젝트 선정

제13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조직위원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집행위원장 정상진)가 유망한 다큐멘터리 프로젝트의 창작자와 산업관계자 간 교류를 위해 선정한 '2021 DMZ인더스트리 공식 프로젝트' 33편을 공개했다.

DMZ인더스트리는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DMZ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의 산업지원 프로그램이다.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조직위원회는 2019년부터 DMZ인더스트리를 출범해 영화제의 제작 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화하고 국내외 창작자를 위한 다큐멘터리 종합 산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DMZ인더스트리는 기획 및 제작 단계에 있는 유망한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창작자가 작품을 완성해 관객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작품 완성을 위한 총 제작 지원금 규모를 기존 3억5,000만원에 5억원으로 상향하고, 접수 분야를 세분화해 창작자 맞춤형 지원 사업을 선보였다. 선정작은 영화제 기간 중 산업관계자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피칭(작품의 투자 배급 등을 유치하기 위해 작품



을 소개하는 자리) 등의 기회도 얻는다.

이러한 이점 속에서 올해 38개국 200여편의 다큐멘터리 프로젝트가 접수됐고, 지난 5월부터 이어진 심사위원단의 심사 끝에 총 19개국 33편의 프로젝트가 최종 선정작으로 결정됐다. 특히 선정작 33편 중 21편이 신진감독의 작품이며, 절반 이상의 작

품은 여성감독의 작품으로 각각 채워졌다. 루마니아, 이라크, 요르단 등의 작품도 선정작에 이름을 올려 지역적 다양성까지 확보했다.

주요 작품을 보면 ▲기획개발펀드(제작 30% 미만 자금 지원) 부문에서는 임연정 감독의 '나를 찍어줘, 언니' 등 10편 ▲제작펀드(제작 30~70% 자금 지원) 부문에서는 중국 우위에 감

독의 '엄마는 챔피언' 등 3편 ▲후반 작업지원펀드(영화제 출품작 자금 지원) 부문에서는 고한범 감독의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등 2편 ▲프로덕션 피칭(제작 30~70% 비즈니스 기회) 부문에서는 인도 투사르 마드하브 감독의 '장가 징 삼의 죽음' 등 13편 ▲러프컷 프레젠테이션(후반 작업 이상 비즈니스 기회) 부문에서는 일본 휴가 후미야리 감독의 '미스핏 코미디언' 등 5편이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다큐멘터리 창작자들의 자금 마련을 위해 7월 14일부터 2주간 장편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인큐베이팅펀드(다큐멘터리 소재 발굴의 조사 활동 단계 지원) 공모도 진행한다"며 "DMZ인더스트리는 앞으로도 다큐멘터리 프로젝트 발굴과 창작자 지원 사업을 꾸준히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13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9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고양·파주시 일대에서 개최된다. 2021 DMZ인더스트리도 9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고양시 일대에서 진행된다.

전순희기자

대전시 한여름밤, 황홀한 음악의 정원으로 초대합니다



대전시립교향악단은 7월 18일 마스터스리츠 7을 대전시립연정국악원에서 이병욱의 객원지휘로 연주한다.

이번 무대에서는 알프스 지방 전원의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브람스 교향곡 2번을 메인 프로그램으로 지휘하며 전반부에는 아르투니안 트럼펫 협주곡을 함께 선보인다.

이병욱 지휘자는 현재 인천시향 음악감독으로 국내외 교향악단은 물론 오케스트라, 발레, 현대음악에 이르는 다양하고 폭넓은 프로그램을 통해 연주자들이 신뢰하는 음악감독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아르투니안 트럼펫 협주곡은 트럼펫의 강한 힘과 화려한 기교가 맘껏 발휘되는 자유분방하고 열정적인 곡으로 트럼펫 협주곡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이날 협연은 오랫동안 대전시향 트럼펫 수석을 지냈던 트럼페터 임승규(현 충남대 관현악과 교수)가 맡

아 오랜만에 단원들과 같이 호흡한다. 늘 생각이 넘치는 강렬한 연주를 선사해온 그의 호소력 짙은 트럼펫의 여운을 느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공연의 대미를 장식할 '브람스 교향곡 2번'은 브람스의 '전원 교향곡'이라고도 불리는 작품으로 색채나 선율이 있어서 밝고 즐거운 분위기가 곡 전반에 흐르고 있으며 그가 남긴 다른 교향곡과는 달리 인간의 온화한 마음과 자연의 맑은 숨결, 눈부신 경쾌함이 느껴지는 곡이다.

여름밤 연주회에 찾아온 관객들에게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시원한 음악 선물이 될것으로 기대된다.

본 공연은 코로나 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으며, 방역 지침에 따른 거리 두기로 좌석 운영을 최소화하여 진행하고 있다. 연주회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립교향악단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고정희기자

안동시, 안동문화예술의전당 특별기획공연 엔니오 모리꼬네 씨네콘서트 2021



안동문화예술의전당은 상반기 흥부를 가뭇을 중시하고 수준 높은 공연과 원활하고 안정적인 무대운영을 위해 자동화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오는 15일 저녁 7시 30분 '엔니오 모리꼬네 씨네콘서트'를 시작으로 최적화된 디지털 하드웨어로 공연을 진행한다.

'엔니오 모리꼬네 씨네콘서트'는 영화음악의 거장이며, 2020년 91세의 일기로 타계한 영화 음악계의 큰 별이었던 이탈리아의 작곡가 엔니오 모리꼬네의 시네마전곡, 헤이트풀8,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 피아니스트의 전설 등 주옥같은 베스트 콜렉션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공연이다.

영화 시네마 천국의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사랑의 테마',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미션의 설서움을 표현한 '넬라 판타지아', 추억의 서부극 '석양에 돌아오다'의 메인 테마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며, 치명적인 보이스 킬러로 잘 알려진 뮤지컬 배우 민우혁의 해설과 기품 있는 소리의 매력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민우경,

우아하면서 카리스마 넘치는 명품 보컬리스트 가수 박기영이 함께 출연한다.

또한, 2003년 클래식 음악을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를 선보이고자 창단된 박상현 지휘자가 이끄는 모스틀리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음악으로 영화의 풍부한 감성을 표현한 '엔니오 모리꼬네 시네마콘서트'의 음악을 통해 관객에게 감동을 전달할 것이다.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관계자는 이번 '엔니오 모리꼬네 씨네콘서트' 공연을 시작으로 제39회 대한민국연극제, 뮤지컬 시카고, 독일 도이치방송오케스트라 내한공연 등 수준 높고 다양한 공연을 준비하고 있어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엔니오 모리꼬네 씨네콘서트'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며 관람료는 R석 5만 원, S석 3만 원, A석 1만 원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 또는 안동문화예술의전당 홈페이지로 확인할 수 있다.

김세기기자

창작 칸타타 '구미호' - 하루가 천년 같은 사랑

군산시립합창단 제105회 정기연주회

군산시립합창단은 구미호와 인간의 현실을 초월한 사랑 이야기 창작 칸타타 '구미호' - 하루가 천년 같은 사랑을 오는 22일 저녁 7시 30분,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주회는 김준범 작곡, 박세복 작사가 참여했으며 김영진 상임지휘자와, 세종시 심포니오케스트라의 협연으로 서곡을 비롯한 총 15곡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우리에게 잘 알려진 구미호 설화를 바탕으로 탄탄한 스토리와 시립합창단의 환상적인 하모니는 가슴이 따듯해지는 감동의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일기자



"오늘 뭐하지?" 김해시 문화정보, AI가 수집한다!



김해시의 모든 문화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열렸다.

(재)김해문화재단 김해문화도시센터는 시민들의 문화정보 접근성 향상과 편의성 증대를 위해 문화도시 김해 홈페이지에 '문화캘린더'를 신설, 관내 모든 문화행사를 한곳에서 볼 수 있는 정보제공 서비스 구축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문화캘린더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정보제공 서비스로, 지역의 다양

한 행사·교육·사회활동 등의 문화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 및 가공하여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서비스다. 인공지능 기능이 적용되어 행사 정보는 자동으로 취합 및 정리되며 최적의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

아울러 일방적인 정보 전달이 아니라 홈페이지 가입 회원이라면 누구나 일정 등록을 통해 행사 정보를 직접 알릴 수 있다. 이렇게 등록된 정보들은 문화도시 김해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문화캘린더에서 바로 확인 가능하다.

김해문화도시센터는 해당 플랫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올 초부터 지역의 홈페이지와 연계하고, 협업하여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고,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사전 검토하는 등 완성도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였다.

센터 관계자는 "앞으로 문화도시 김해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문화캘린더를 통해 원하는 문화행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중심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지역의 건강한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고, 나아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최광용기자

'2021년 강원도공예품대전' '박태혜의 칠보 장식소품' 대상 선정



강원도는 '2021년 강원도공예품대전'에서 박태혜의 '칠보 장식소품'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올해로 51회를 맞은 강원도공예품대전은 예술성과 상품성을 지닌 강원도 우수 공예품 발굴을 위해 강원도와 강원도공예협회등조합이 주최·주관하고 있다.

이번 공예품대전에는 70점이 출품되었으며 공예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12명의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대상을 포함한 25작품을 선정하였다.

대상을 받은 '칠보 장식소품'은 불, 금속, 유약의 만남으로 여러 번 소성 과정을 거쳐 독창적인 색감과 입체감, 깊이감을 나타내며, 신사임당의 초충도와 여해도, 심장생 등의 민

화와 현대 도자 기법을 접목시켜 만든 작품이다. 은선, 은박, 금박, 칠보 유약을 올리고 780도 소성하여 만든 화병과 소품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선 이상을 받은 25개 작품은 오는 8월 청주에서 개최예정인 '제51회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본선에 강원도 대표로 출품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올해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생략된다.

박광용 강원도 경제진흥국장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예품 대전에 출품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수상의 영예를 안은 모든 분들께 축하드립니다"고 하면서 "도 대표로 본선에 출품한 작품들이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등원기자

24개 재난안전기업에 맞춤형 상담 지원하여 성장 돕는다

화재안전, 자연재해, 교통안전 분야에서 우수 기술 보유한 24개 기업 선정

행정안전부는 우수기술·제품을 보유한 재난안전기업이 사업화 과정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성장을 돕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7월 12일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올해 24개 기업이 맞춤형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공모를 통해 접수된 54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검토·현장진단을 거쳐, 기술·제품의 시장성, 사업화 성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최종심사 과정을 통해 24개 기업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정된 24개 기업은 ▲화재안전 분야, ▲자연재해 분야, ▲교통안전 분야 등에서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먼저, 화재안전 분야에는 소화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곳에 부착하는 화재 자동진화 테이프, 오작동 방지 스프링클러, 융합센서 기반 지능형 화재감지기 등을 생산하는 10개 기업이 선정되었다.

산업·시설물 안전 분야에는 구조물 붕괴위험 스마트계측 모니터링 시스템, 산업현장 안전관리 인공지능 플랫폼, 내진용 무용접 배관 등을 생산하는 5개 기업이 선정되었다.

또한, 자연재해 분야에는 사물인터넷(IoT) 센서로 충격·기울어짐을 계속하여 붕괴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급경사지 붕괴감지시스템', 물 절약과 물 재이용 촉진을 위한 '친환경 빗물저금통' 등을 제조하는 4개 기업이 선정되었다.

이외에 교통안전 등의 분야에서 사

를 방지할 수 있는 관제솔루션, AI(인공지능)가 탑재된 인명구조용 드론, 전염병 예방을 위한 공간멸균기 등 다양한 재난안전 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5개 기업이 선정되었다.

상담(컨설팅) 분야는 공공조달, 인종확득, 제품 디자인, 해외수출 등 6개 분야로 참여기업의 세부 수요요사를 통해 기업이 원하는 분야의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외에도 간담회 및 전문가 강연 등을 통해 참여기업 간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정보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한 행정안전부 안전관리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중소 재난안전기업에게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지원하여 시장진출 확대 등 기업 성장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



난안전기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경북도-한수원 맞손... 지역 상생발전과 동반성장 나선다

경상북도도와 한수원은 12일 경북도청 사립실에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청년인재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동반성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은 ▷경북 청년창업가 발굴·육성과 판로지원 ▷독립유공자 후손주거개선사업 지원 ▷도내 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협력 ▷도내 주민소득 증대사업 개발과 육성 협력 ▷지역일자리와 취업지원 등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수원은 금년 도에서 추진하는 도내 청년유입과 정착을 위한 청년창업 지원사업과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코로나19로 인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처해 있는 청년기업의 제품 판매를 위해 한수원 본사내 사회적기업제품 판매장에 청년기업 제품을 입점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한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 대해 상호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하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북도에서 추진하는 경북형 소셜벤처 활성화사업에도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또, 한수원은 지역의 청년 유출을 막고 청년들의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생태계조성과 자립기반을 위해 원자력 관련기관에 매년 도내 청년 채용 확대를 위해 채용 인턴사업에도 지역 청년채용을 확대하는 등 지역의 인재 양성에 적극 앞장 설 계



획이다. 이날 참석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코로나 장기화로 힘든 시기에 한수원과 협력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단비와 같다"며, "오늘 협약을 통해 지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지역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하여 경북이 위기를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 할 수 있는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북도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해 상생의 미래를 열어가자"고 말했다.

한수원은 2016년 본사를 경주로 이전한 후 경주시와 공동발전을 위한 경주 상생발전 종합계획을 추진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하여 경북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행복하고 살기 좋은 경북도 건설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세기/기자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전국 최초 수소기술 공모전 '케이(K) - 수소 신기술 그랜드 챌린지' 개최

K-H2 신기술 Grand Challenge 1기를 모집합니다.
수소산업 전주기 분야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울산 지역 대기업과 연결합니다.

모집기간 — 2021. 07. 12. ~ 08. 31.
모집대상 — 수소산업 전주기 분야 신기술을 보유한 (해외)기업자 및 벤처중소기업 누구나
모집규모 — 5개팀 내외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금 (최대 50만원), 파트너기업과 사업협력 기회 제공, 맞춤형 기업 육성 프로그램, 울산경제자유구역 내 공공 인프라 제공
지원 및 선발과정 — 서류지원 (서류 평가 발표), 현장심사 (현장 발표), 최종선발 발표, 발표평가
문의 — U-STAR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별도사항은 담당자 문의 (E. wisad@ksck.kr, T. 052.716.5164)

울산경제자유구역청(청장 조영신)은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김재훈)를 주관, 수소융합얼라이언스(희장 전제도) 후원 등으로 울산의 수소경제를 이끌 스타트업 및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수소 기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7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공모를 진행하는 '케이-수소 신기술 그랜드 챌린지(1기)'(K-H2 신기술 Grand Challenge)는 수소기술(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마련한 울산경제자유구역의 특화된 투자유치 전략으로 수소기술(기업)을 발굴·육성하는 플랫폼이다.

이번 공모전의 핵심은 세계(글로벌) 수소경제를 선도하는 울산 소재 대기업 및 공공기관이 파트너로 참여하여, 수요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및 중소·벤처기업을 함께 발굴하고, 직접 평가할 뿐만 아니라 상용화가 가능한 수요기술은 파트너사의 기반(인프라) 공유, 현장 적용, 투자 등을 통해 수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다.

최근 수소산업의 동향을 보면 국내 주요 기업이 수소 분야 세계 선도(글로벌 리더)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수소산업의 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외 기업 간 업무협약, 인수합병, 조인트벤처 설립 등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 소재 대기업 및 공

공기관도 첨단 수소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스타트업 및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이번 공모전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

공모 분야는 수소산업 전주기(생산, 운송, 저장, 활용) 분야 신기술로서 새 싹 기업(스타트업) 및 중소·벤처기업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공모 후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된 팀에게는 사업화를 위한 상금(기업당 최대 500만 원)은 물론, 울산경제자유구역 내 공공 기반(인프라)을 제공하고 또한 기업 운영에 필요한 교육 등 체계적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특히 기업성장(Scale-up)을 위한 파트너사와 사업협력기회를 제공하고 1,600억 원 규모의 펀드도 연계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케이-수소 신기술 그랜드 챌린지(1기) 공모 관련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울산센터 누리집 혹은 유-스타(U-STAR)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울산경제자유구역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수소산업 전주기의 신기술을 발굴하고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이를 발판으로 수소기업을 유치하여 울산의 수소경제가 지속 성장하고, 수소 플러그인을 통해 동북아 에너지 허브도시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기현/기자

'K-2 종전부지 국제아이디어 공모전' 시행

K-2 글로벌 브랜딩을 위한 네이밍 공모

K-2 종전부지 국제아이디어 공모
07.13 - 09.13

신청대상 — 국내외 기업, 단체, 개인 누구나
신청기간 — 2021. 07. 13. ~ 2021. 09. 13. (월요일 제외)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참조)
신청처 — 울산광역시 울주구 울진읍 울진로 100-1, K-2 종전부지 국제아이디어 공모사업부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계 공모 추진

충남도 종합건설사업소는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설계공모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은 지난해 4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지역 사회적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종합 지원을 수행한다.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청양 여자정보고등학교 예전 부지에 연면적 약 7500㎡ 규모로 조성하며, △사회적경제 기업 입주 공간 △식물특화 메이커스페이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농산물체험가공실 등을 포함한다.

이번 설계 공모는 건축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우수 공모안을 선별해 당선작을 결정할 예정이다.

응모 신청서 접수 및 현장 설명회는 오는 22일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사업 현장 일원에서 진행하며, 공모안(작품)은 8월 16일 도 종합건설사업소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8월 30일에는 제안서 발표 및 심사 등을 진행하고 심사 결과는 8월

31일 발표할 계획이다. 설계 공모 관련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 공모·고시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동석 도 종합건설사업소장은 "많은 작품이 응모할 수 있도록 제출서류를 간소화했고 투명·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 전 과정을 온라인(유투브)으로 실시간 생중계할 계획"이라면서 "국내 역량 있는 우수 건축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북구,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3년 연속 '최우수상'

광주광역시 북구는 고용노동부 주관 '2021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일자리대상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고자 마련됐다.

북구는 고용 창출 효과를 평가받는 '우수사업'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음으로써 민선 7기 들어 3년 연속이자 2013년 이후 9년 동안 연속으로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또한 지난해 지역 내 집적화된 디자인산업과 연계한 세대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청년 미취업자 디자인 실무인재 양성 ▲지역기업 제품, 패키지 디자인 애로사항 해결 ▲중장년, 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해 핵심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북구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고용노동부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 3개 일자리 사업에서 확보한 사업비 26억

8천만 원을 투입해 산업 경쟁력 강화와 736명의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지역 고용현황을 꼼꼼하게 분석해 현장 중심의 일자리 사업을 펼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고용네트워크 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등 고용위기 극복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윤/기자



남영기/기자

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 동탄역 멀티플라이어' 오피스텔 9일(금) 견본주택 오픈

현대엔지니어링은 9일(금)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지원시설 용지 39블록에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동탄역 멀티플라이어' 오피스텔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

■ 동탄테크노밸리 중심에 위치해 서울 접근성 우수...생활인프라도 갖춰

'힐스테이트 동탄역 멀티플라이어'는 동탄테크노밸리 중심 입지에 위치해 교통 여건이 뛰어나다. 반경 약 1.5km 거리에 SRT 동탄역이 위치해 있으며, 이를 통해 SRT 수서역까지 약 17분에 이동할 수 있어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다. 또한 경부고속도로, 용인~서울 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오산~봉담) 등이 가까워 차량을 통해

타지역으로 이 동도 수월하다. 여기에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이천~오산) 구간도 2022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교통호재도 갖췄다. 기존 SRT 동탄역에 파주 운정-삼 성-동탄을 잇는 GTX-A 노선이 개통될 예정이며, GTX-A노선 이용시 서울 삼성역까지 약 22분대 도달할 수 있는 등 서울 강남 접근성이 더욱 좋아질 계획이다.

도보 거리에 동탄 도시철도 트램도 2027년 개통될 예정이다. 경기도청 자료를 보면 동 탄 도시철도는 수원 망포역~동탄역~오산역, 병점역~동탄역~차량기지 2개 구간에 걸쳐 트램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분당선 망포역, 1호선 오산역, 병점역 등

주요 철도망의 환승 역과 연계돼 수도권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분당선 연장(기흥~동탄~오산) 계획도 포 함되어 교통여건은 더욱 개선될 예정이다.

동탄2신도시 중심 입지에 위치한 만큼 생활인프라도 풍부하다. 롯데백화점 동탄점 (2021년 하반기 오픈예정), 하나로마트 동탄2신도시점, 이마트 동탄점, 코스트코 공세점, 롯데프리미엄아울렛 기흥점, 이케아 기흥점 등 생활 편의시설이 가깝다. 인근에 늘봄초, 다원초, 다원중, 한백고 등 초·중·고교가 위치해 있다. 선남숲공원, 치동천 체육공원, 청계 중앙공원 등 주변으로

녹지가 풍부해 쾌적한 생활 환경도 누릴 수 있다.

■ 주거형 오피스텔 상품 특성에 맞춘 '힐스테이트' 설계 적용

'힐스테이트 동탄역 멀티플라이어' 전용면적 84㎡타입의 경우 4Bay 및 통풍 구조로 설 계대 채광 및 통풍이 우수하며, 안방 드레스룸, 복도 팬트리가 적용돼 수납공간이 넉넉하다. 전용면적 64㎡에도 안방 드레스룸이 적용된다.

단지 3층 옥상정원 '멀티루프가든'은 오피스텔 전용 조경 공간으로 어린이 놀이시설도 함께 조성돼 자녀와 함께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 GX룸 등이 들어선다.

'힐스테이트 동탄역 멀티플라이어'는 아파트 대비 청약, 대출 등 규

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장점도 있다. 오피스텔은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거주지 제한이나 주택 소유 여부 등과 상관 없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할 수 있다. 오피스텔 분

양권의 경우 취득세 계산 시 주택수에 포함 되지 않으며, 아파트 청약 시에도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동탄역 멀티플라이어는 동탄2신도시 핵심 입지에 위치해 풍부한 배후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힐스테이트 브랜드와 주거형 오피스텔 상품으로 구성돼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힐스테이트 동탄역 멀티플라이

어' 주거형 오피스텔은 7월 14일(수)~15일(목) 2일간 청 약접수가 진행되며, 당첨자발표는 19일(월), 정당 계약은 21일(수)~22일(목) 진행된다.

'힐스테이트 동탄역 멀티플라이어' 견본주택은 9일(금)부터 관람이 가능하며, 코로나19 확산 및 감염 예방을 위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한다. 사전 예약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예약 고객 방문 시 마스크 미착용, 체온 측정 시 37.5도 이상이면 입장 이 제한될 수 있다. '힐스테이트 동탄역 멀티플라이어'의 견본주택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 구 동천동 855-2번지(신분당선 동천역 2번 출구 인근)에 위치해 있다.

☎ 분양 문의 : 1899-8069

김남주기자

